

朴-李 난타전 가열... 당 분열 수준

근혜 명박

朴, 李 전 시장 '軍면제' 거론하며 역공 李, "출산발언 미안"... 신년인사회 불참

한나라당 양대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간의 '후보검증' 공방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단순한 검증문제를 넘어 이미 검증싸움으로까지 비화돼 벌써부터 당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경선의 시기와 방법을 놓고 두 주자가 슬슬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당내 경선은 검증 문제와 경선 틀 등이 뒤엉켜 한층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박 전 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나처럼 애를 넣어봐야 보육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는 이 전 시장의 대선 발언을 문제 삼아 인신공격성 여성비하 발언을 하고 있다며 "그런 게 네거티브"라고 역공을 폈다.

박 전 대표는 "문제를 미리 해결하지는 차원에서 검증문을 꺼냈을 뿐인데 저쪽에서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며 "저쪽에서 우리 보고 '네거티브'를 하

자는 것'이라고 묻는 데 '애를 넣어보지 않으면 보육을 말할 자격이 없다', '여자는 안되고 시기상조다'는 등의 주장이야말로 진짜 네거티브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그런 논리대로라면 '남자로서 군에 안 갔다 오면 군통수권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논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당연한 검증 문제를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 경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과거 서울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을 예로 들었던 것"이라며 "특정인을 염두에 둔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렇게 비했다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대선 발언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 전 시장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조순웅의 아침저녁'에 출연, "후보끼리 검증하지는 것은

정치공세로 봐야 한다"며 박 전 대표의 검증요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전 시장이 애초 참석키로 했던 이날 중앙위원회 신년인사회에 불참한 것도 이런 불만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왔다.

두 주자의 날선 공방을 의식한 듯 이날 중앙위 신년인사회에서는 대선주자들의 공방 자체와 함께 당의 단합을 요구하는 주문이 쏟아졌다. 강재섭 대표는 인사말에서 "우리끼리 인신공격하는 그런 형태의 검증에 반대한다"며 "과거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열린우리당이 당을 깨고 부수면서 국민의 관심을 얻을 때 우리는 각 지역을 돌면서 정책 검증, 정책토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명진 위원장은 "서로 자제하지 않으면 결국 해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든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당내 경선출마 의사를 밝힌 고진희 의원은 중앙위 신년인사회에서 "검증은 당연히 해야 한다. 국민의 4대 의무를 지켰는지, 어떤 정책과 노선을 가졌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면서 "박 전 대표가 '10명의 김대업' 얘기를 했는데 나는 100명, 1천명의 김대업이 와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진보진영 "단일 대선후보 내겠다"

미래구상, 오늘 여수서 토론회... 3~4월 정식 출범

제3의 정치세력을 표방한 진보진영 모임 '참조한국 미래구상(가칭)'은 22일 "차기 대선에 진보개혁 세력의 단일 국민후보를 배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미래구상은 이를 위해 23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여수YMCA 강당에서 '시민사회 시국 대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대안을 모색한다.

미래구상은 2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0일 준비위원회를 발족, 3~4월 정식 출범한 뒤 올해 대선에서 진보개혁 세력의 연합·연대를 통한 승리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래구상은 '선(先)정책 후(後)후보'라는 기준에 따라 시민·시민사회 단체·전문가들이 생산한 정책을 기반으로 받아들이고 범국민적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전국적 정책연구 네트워크 구성과 '중흥무진 정책토론회'를 추진키로 했다.

미래구상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요구가 결합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를 경선 등 방법을 통해 선출하겠지만 정당을 구성하거나 기존 제도권 정당에 수월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방식의 정치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미래구상은 지난 20일 광주에서 지역인사 60여명과 함께 내부토론회를 갖고 정책 중심 대응, '순회 정책토론

회' 개최, 30일 준비위 발족식 개최 등을 결정했으며 현재 96명인 제안자를 600명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23일 오후 6시30분 여수YMCA 강당에서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주관 아래 '역사를 진보시키는 2007년 이 되어야 한다'를 주제로 시국 대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호 성공회대학교 교수, 주재호 광주대 교수, 신대운 전남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장, 박소정 순천YMCA 이사장, 안희만 나주사랑시민연대 운영위원장 등 패널 토론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미래구상은 '선(先)정책 후(後)후보'라는 기준에 따라 시민·시민사회 단체·전문가들이 생산한 정책을 기반으로 받아들이고 범국민적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전국적 정책연구 네트워크 구성과 '중흥무진 정책토론회'를 추진키로 했다.

미래구상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요구가 결합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를 경선 등 방법을 통해 선출하겠지만 정당을 구성하거나 기존 제도권 정당에 수월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방식의 정치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미래구상은 지난 20일 광주에서 지역인사 60여명과 함께 내부토론회를 갖고 정책 중심 대응, '순회 정책토론

/정희숙기자 who@kwangju.co.kr



국기에 경례하는 이강국 새 헌재소장

신임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맨 오른쪽)이 22일 오후 서울 가회동 헌법재판소 1층 강당에서 열린 자신의 취임식에서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신당과 일부 민주당 고려"

민주당 이낙연 의원(영광·함평)이 "열린우리당 신당과 의원 가운데 일부가 민주당 입당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22일 "최근 며칠 동안 열린우리당 신당과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만났다"며 "이분들 가운데 복수의 의원이 민주당 입당 의사를 내비쳤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민주당 입당 의사를 밝히는 등 정계개편이 급류를 타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조금더 빨리 치르겠다는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민주당 입당이 현실화된다면 당명 개정 및 의원 확장 등을 결의하는 리모델링형 전당대회가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그러나 여당의 붕괴가 비교적 질서있게 진행된다면 민주당도 이에 맞춰 전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통합수입구역 역할을 맡는 형태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여당 탈당과 그룹에 합류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 이 의원은 "여당이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도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근혜 헤어스타일 바꾸고 나니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헤어스타일 변화 모습. 왼쪽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모습이고 가운데는 지난 15일 변화 직후, 오른쪽은 22일 다시 달라진 모습이다.

"더 짧게, 더 강하게"... 평가 엇갈려

한나라당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일주일만에 두 번이나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준 것이 정가의 화제가 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5일 웨이브를 쥐 관으로 양옆을 단단히 고정시켜 고육영수 여사를 연상시켰던 '올림머리' 대신 기존 스타일을 유지하되 전체적으로 머리를 느슨하게 늘어뜨린 긴 단발로 과감한 변신을 시도했다. 그리고 그제는 일주일 만인 22일 헤어스타일을 조금 더 짧아진 '웨이브 단발'로 정돈했다. 그는 지난 15일 머리 모양을 바꾼 이유에 대해 "이젠 위잉머리, 준비기간이 끝났다"고 말했다.

짧아진 머리로 더 강한 이미지를 연상시키려는 의도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같은 박 전 대표의 변신에 대해 일반 국민의 평가는 긍정과 부정 이 혼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변신 직후인 지난 18일 인내 7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55%) 결과, 박 전 대표의 새로운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린다는 의견은 30.1%였고 기존의 올림머리 스타일이 더 낫다는 의견은 26.8%로 나타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남권 개발 지역 주민이 나서야"

김종남 서남해안포럼 광주운영위원장



"올해 서남권개발 계획 특별법 제정 추진 등 실현의 원력을 맞아 지역 주민들이 '주인'으로 나서야 합니다." 최근 취임한 김종남 (사)서남해안포럼 광주운영위원장(62·전 광주일보 편집국장·사진)은 올해 본격화될 서남권 개발사업에서 지역주민들이 제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남해안 개발사업을 민간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서남해안포럼은 을 한

해동안 광주를 중심으로 서울·목포에 서 주민생활의와 특별법 제정 운동 등 구체적인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우선 지역주민들의 참여권 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부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정부가 서남권 개발 전폭 지원을 약속한 만큼 지역주민들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병아리가 알을 깨

고 나오기 위해서는 안에서 먼저 닭질을 쪼아야 하듯 지역민들은 뜻을 한 데 모아 정부와 국회가 움직이도록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이 '인화'만 이뤄낸다면 서남권 개발의 꿈은 틀림없이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구인·구직·운전·모집
초빙·영입·모임
사실검증·매일·부동산
매매·임대·전세·분양

◆광주본점: 001-107-2281 80
◆논: 617-01-108334
※예금주(주)광주일보사

• 직통: (062)227-9600
• FAX: 227-9500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박배자(380215-2551314)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제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 시행에 따른 관할 법률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 재권 또는 승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시간번호: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6년 단 1057

공고인: 김미복, 김영중, 김제도

한정승인수리일: 2006. 10. 9.

공고기간: 2007. 1. 23 ~ 2007. 3. 22

연 락 처: 광주 북구 오치동 862-10 대영아파트 101-601 김제도(☎ 011-9803-7271)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이상현(401010-1663313)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제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 시행에 따른 관할 법률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 재권 또는 승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시간번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6년 단 186

공 고 인: 1.이재형 2.이재갑 3.이재민 (위 청구인 1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 권관자 모 신혜리, 청구인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전권자 부 이장희, 모 김관자)

한정승인수리일: 2006. 12. 21.

공고기간: 2007. 1. 23 ~ 2007. 3. 22

연 락 처: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76 신트라타워지아파트 308-805 이장희(☎ 010-6495-9190)

(주)부성주택산업
전문건설업양도양수신청공고

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양도양수 신청(신설) 제18호 및 일반사설(제18호) 4명의 자격을 양도양수 할 공고로써 나 이상경에게 있는 자격에 기용(4명)에 대해 양도양수 신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22일 (주)부성주택산업

- 양도양수신청의 종류: 공인 건축시공사업(광주시 02-10-08)
- 양도양수일: 2007년 2월 23일
-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마감일: 2007년 2월 23일 18:00
- 가. 일 시: 2007년 2월 23일 18:00
- 나. 제출장소: 광주 서구 황룡동 1286-1 (주)부성주택산업 신청은 전화: 062)371-0774

- 양도양수 대표자: 신정순
상 호: 주식회사 부성주택산업
소재지: 광주 서구 황룡동 1286-1
연락처: 062)371-0774
- 양수자 대표자: 신정순
상 호: 유한회사 호진건설
소재지: 광주 서구 황룡동 304-1(KT&G, 3층)
연락처: 062)351-7640

토익 만점 기록 11회 대행진!

現서울YBM시사영어학원 **조성훈** 교수 전격 초빙!

여러분을 TOEIC 실력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TOEIC 990점 만점! 이전 여러분 차례입니다!

목표점수까지 무한반복수강!

- 990점 만점반
- 800점 목표반
- 660점 목표반
- 초등중학생반

www.donga.tv

동아외국어학원이 30년 만에 신관으로 장소를 이전하였습니다!

예술의 거리 → 중앙초등학교 후문 사거리 입구 ☎(062)222-6253

동아외국어학원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 법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하시거나 비라래 공고기간내 신고가 없을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장사등에 관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분묘소재지	지 번	분묘기수	비고
전남 함평군 화곡면 월호리	산80번지	9	
전남 함평군 화곡면 월호리	산81번지	1	
전남 함평군 화곡면 죽림리	산144번지	1	
전남 함평군 화곡면 죽림리	산146번지	11	
전남 함평군 화곡면 죽림리	산147번지	6	
전남 함평군 화곡면 죽림리	산150-1번지	3	
계		31	

2. 개장사유: 계곡시설(골프장부지)편입 부지

3. 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유연고 분묘는 연고자가 신고후 개장, 무연고 분묘는 공고기간 경과후 신고자 임의의 개장

5. 개장장소: 인허가된 남굴당

6. 신고 처: (주)광주일보사 행정관리부 062-222-9771
함평군 학교편사부서 061-320-3604

7. 기 타: 분묘개장 공고 후 누락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07년 1월 23일
공고인 광주시 동구 금남로2가20-2
(주)광주일보사 대표이사 김진영

남부대학교
겸임 및 외래(시간)교수 초빙

- 남부대학교에서는 2007학년도 1학기 겸임교수 및 외래(시간)교수를 초빙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남부대학교 홈페이지(www.nambu.ac.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및 접수처: 2007년 1월 23일(화) ~ 26일(금)까지, 교무처
- 문 의: 교무처 김영진(062-970-0042)

세계로 앞서는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남부대학교 전기대학원 석·박사 과정 모집중